

에너지절약사업과 ESCO협회를 위해 뛰다

■ 김인숙 기자(kis@energycenter.co.kr)



이번호의 ESCO People은 ESCO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금호전기 광규천 이사다. 78년 금호전기 탄생과 동시에 공채1기로 입사한 광 이사는 올해로 입사 25년차인 정통 '금호맨'.

일에 있어서 믿음과 신뢰를 최우선 덕목으로 손꼽는 그를 만나 최근 금호전기 ESCO사업부와 국내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고객에게 심어주는 신뢰감이 ESCO사업 성공비결

최근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2003년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조사결과 금호전기의 '번개표'가 조명램프부문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최고의 공신력을 인정받은 국내 조명업체의 최강자 금호전기는 지난 97년부터 시작한 ESCO사업에서도 그 맹위를 떨치고 있다.

“전기 조명분야에서 수십년간 쌓아온 기술력에 튼튼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한 안정성이 더해져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광규천 이사는 이같은 요소가 금호전기 ESCO사업이 높은 실적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근래에 들어 금호전기는 대우재단빌딩, 경방백화점, 공군대구비행장, 시사빌딩, 공릉삼익아파트 등에 다양한 ESCO사업을 전개, 선두업체로서의 면모를 또한번 과시했다. 성공적인 ESCO사업사례로 꼽히는 대우재단빌딩의 경우, 기존 터보냉동기와 LNG보일러를 흡수식 냉온수기 및 완전공조기로 교체하여 연간 3억8천 만원에 이르는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올 하반기 금호전기 ESCO사업부에서는 주력분야인 조명 ESCO사업 뿐 아니라 냉난방설비, 인버터, 폐열회수, 소형

“

사람들에게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자신의 직업에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는 곽규천 이사는 '에너지절약'이 아마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한다.

”

열병합발전 등 프로젝트사업에 비중을 두면서 신규 아이템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연초부터 ESCO업체들 사이에 수주경쟁이 뜨거웠던 소형 열병합발전분야에서 곧 스타트를 끊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와 협회 누비는 Multi Player

사람들에게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자신의 직업에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는 곽규천 이사는 '에너지절약'이 아마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한다.

“환경문제와 에너지수입에 대처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에너지절약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존속 발전시켜나가기야 하며, 그 시장은 기업들의 기술력향상에 따른 다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사에선 4개 사업부를 관장하는 곽규천 이사에게는 ESCO협회 부회장이라는 또하나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협회 임무에 대한 강한 의욕과 애정이 엿보이는 그에게 협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나고 물어보았다.

“앞으로 협회의 위상과 지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합니다. 회원사들의 단합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ESCO의 창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여 업무영역을 넓히는 한편 ESCO사업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는 협회발전을 위해 자신의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라는 믿음으로 지금껏 달려온 그는 요즘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정보화시대를 살면서 좀

더 새롭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한다. 늘 긴장감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삶의 유쾌함이 묻어났다.☺

